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관계에서 개인작업신념의 효과

김윤중*

¹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Effect of the Personal Agency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

Kim Youn Joong^{1*}

¹The Graduate School of Vocational,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에 있어 개인작업신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 지역에 소재한 4년제 국·공립 대학교 재학생 총 6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WIN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측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 조절적 중다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공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 있어 개인작업신념이 부분매개 또는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variables that can affect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ocusing mainly on the satisfaction with one's major in colleg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This research carried out a survey on a total of 626 students at 4-year public and private university. The information is processed using the SPSSWIN19.0 program, which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measurement, one-way ANOVA, linear regression analysis,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and three-step mediat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groups showing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had a higher level of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Personal beliefs was one thing that can achieve partial mediation or complete mediation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their major and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Key Words :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major satisfaction, motivation, personal agency beliefs

1. 서론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개인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1].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71.3%로[2] 세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과 전공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와 직업세계의 다양한 변화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력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합격 위주의 대학을 선택하면서 학과, 더 나아가 학교 부적응 및 진로와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학부제, 부전공, 복수전공 등의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은 전공 전환의 기회가 경직되어 있으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 Joong(Kyonggi Univ.)

Tel: +82-10-2005-9934 email: sunshine@hansei.ac.kr

Received July 15, 2014

Revised August 21,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며 이 또한 학교 내에 존재하는 학과이어야 가능하다.

전공 선택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단기간에 전공을 선택하기 보다는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관에 경험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학교 서열화가 존재하고 과도한 경쟁이 존재하는 현 입시체제에서 직업적 정체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대학명성과 학과인기도를 포기한 채 자신의 적성만을 추구한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학과인기도를 고려한 학생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4] 볼 때 적성에 맞다고 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0~2012년 청년 취업자 100명 중 77명은 고교나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첫 직장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은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키워나가는 요람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합격위주의 대학선택, 직업적 정체성의 혼란, 전공과 무관한 진로 선택 등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자기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 사회적 변화 및 환경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나 직업을 탐색하여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직업세계에 참여하기 위한 진로를 준비해야 한다[5].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진로행동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대학생들은 동기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거나, 자신과 직업에 대한 탐색과 몰입 없이 학점관리, 영어공부 등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전념하고 있다[6]. 그러므로 각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통해 저학년부턴 삶 전반에 대한 진로설정과 함께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하고 진로결정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인작업인신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 기술,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며 목표를 이루는데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동기 요인으로 개인작업인신념을

선정하여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에 있어 개인작업인신념이 어떠한 효과를 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의 자신의 진로자본 중 전공에 대한 선택이 끝난 상태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진로상담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2.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2.1.1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은 Marcia(1993)와 Erikson(1968)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정체감 형성과 진로발달 과정이 매우 흡사한 발달과업을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달한 개념이다[7]. 진로결정몰입은 몰입과 탐색이라는 두 가지 발달과업을 하위요소로 가지고 있다[8]. 즉, 개인의 특성 및 직업에 대한 탐색과 개인의 진로목표에 대한 몰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몰입은 자신의 직업적인 선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특정한 진로목표에 대해 강력하게 애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을 포함한다[9]. 이러한 몰입은 다양한 개인적인 상호작용에 따라 개인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몰입에 대한 개인차는 진로배제경향(tendency to foreclose)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진로배제경향은 자신이 결정한 직업이나 진로목표에 강력하게 애착하고 이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높은 수준의 진로배제경향은 중요한 교육 및 진로결정에 가능한 한 빨리 몰입하려고 하고 미확인된 요소들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결정을 강력하게 고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0]. 진로배제 경향이 약한 개인은 모호함을 견뎌내는데 편안함을 느끼고 이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몰입을 미루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탐색은 잠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모든 요소들을 수집, 분석하여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며 탐색과 몰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과업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탐색 활동은 개인에게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선택에 확신을 갖게 도와줄 수 있으나 탐색행동이 곧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11][12], 진로결정 과정의 후기 단계로 갈수록 정보부족 보다는 평가 어려움과 결과 불확실성에 관련된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13]. 그리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결정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결정 과정에서 정보습득을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 외에 결과에 대한 불안, 대안 간의 갈등, 불확실성 등의 선택갈등에 대한 부분을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4].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몰입을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한 애착뿐만 아니라 진로목표를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 그리고 선택갈등 등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가족관련 변인이다[9][15][16][17][18]. 이외에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7], 자기결정성[16], 환경과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9], 자기정체감[17],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자기결정성[12] 등을 보고하고 있다.

2.1.1 개인작인신념

Ford(1992)는 기존 동기이론을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한 동기체계이론(motivational system theory)에서 인간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건설적 힘을 가진 유기체로 간주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Ford(1992)는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 과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들이 있으며, 이를 목표, 개인작인신념, 정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목표는 개인의 조직화된 행동유형을 얻고자 하는 결과와 일치 않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조정하기 때문이다[19][20]. 하지만 목표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강한 동기 패턴을 유지하고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개인작인신념이 필요하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 줄

방도가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과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능력과 지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신념을 포함한다. Ford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식, 기술,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적 신념을 능력신념이라 정의하였고, 주변 환경이 효과적인 기능을 하는데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맥락신념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목표와 개인작인신념은 정서에 의해 중요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서는 바라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구성된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킴으로써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개인작인신념이 능동적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고하였고 이를 증진시킬 것을 강조한다. 스웨덴 26개 간호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실용화를 위한 교육지원과 근거기반 임상기술에 따른 능력신념을 연구한 결과, 각 대학의 교육 과정과 교육관점에 따라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지원의 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근거기반 임상능력에 대한 능력신념도 차이가 있었으며, 능력신념이 실제 근거기반 임상시행에 있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1]. Chong은 아시아의 학습 성취도가 낮은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보면서 개인작인신념을 포함한 자기조절 능력이 관련이 깊은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22]. 또한 학교에서 효율성이 뛰어난 중학생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3]. 미국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개인작인신념 유형을 살펴본 연구결과 68%가 강한 능력신념과 중립적 맥락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도전적이거나 스트레스적인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끈기 있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의 능력신념과 중립적 맥락신념을 가지고 있는 상치받기 쉬운 유형이 19%의 분포를 보였다. 과학교사들은 대학원 수준의 과학교육 수업이나 강좌를 수강한 횟수와 일주일에 과학을 가르치는 시간에 따라 개인작인신념에 정적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4].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직무관리 특성, 조직문화, 수행평가가 작업자의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25].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만족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

에서는 고학년, 취업률이 높은 상경계열 전공자, 전공만족, 교수-학생관계 만족, 사회적 인식만족, 학교만족이 높을수록 능력신념과 맥락신념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하였다[26]. 또한 개인작인신념이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지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27],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서는 대학생의 전반적인 동기를 높이는데 개인작인신념이 중요함을 밝혔다[28].

2.2 연구방법

2.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626명의 자료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개인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haracteristics		N	%
Gender	M	306	48.9
	F	320	51.1
Grade	1	135	21.6
	2	175	28.0
	3	140	22.4
	4	176	28.1
Major	Humanity	213	34.0
	Technology	262	41.9
	Art&Physical	70	11.2
	The other	81	12.9
Major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82	13.1
	Satisfaction	277	44.2
	Normal	197	31.5
	Dissatisfaction	60	9.6
	Very dissatisfaction	10	1.6
Total		626	100

2.2.2 설문지의 구성

진로결정몰입을 측정하기 위해 Blustein, Ellis, Devenis(1989)의 진로결정몰입척도, Jackson,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 Jones(1989)의 진로결정척도 등을 참고하여 20개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 행동, 정서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 선택갈등의 4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한다. ‘진로

배제경향’ 요인부하량은 .80~.69 사이에 있었고 ‘몰입’ .75~.43, ‘탐색’ .78~.61, ‘선택갈등’ 요인부하량은 .81~.62 사이에 각각 분포함으로써 본 검사도구의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Cronbach’s α 계수의 의한 신뢰도는 .68~.85에 분포하였다.

개인작인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안윤정(2011)이 Ford의 개인작인신념 개념을 반영하여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생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능력신념 5문항과 맥락신념 5문항씩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능력신념’ 요인부하량은 .82~.55, ‘맥락신념’ 요인부하량은 .73~.51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는 능력신념이 .84, 맥락신념이 .7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주관적인 평가로 전반적인 만족 정도를 매우 만족(5), 만족(4), 보통(3), 불만족(2), 매우 불만족(1)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반응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고한 자기보고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전공만족에 대한 정교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경상 등의 지역과 국립대, 공립대 등의 학교 유형,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하여 표집을 하였다고는 하나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우리나라 4년제 대학생 전체집단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3 연구결과

2.3.1 전공만족에 따른 진로결정몰입의 차이

전공만족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몰입, 탐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선택갈등에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행동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29][30]와 같은 결과이다.

[Table 2] Distinction i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ccording to major satisfaction

	Major satisfaction	N	M	SD	F	Post test
Tendency to foreclose	Very satisfaction	82	2.59	.90	1.85	
	Satisfaction	277	2.52	.72		
	Normal	197	2.45	.67		
	Dissatisfaction	60	2.29	.70		
Commitment	Very dissatisfaction	10	2.60	.85	23.22***	e<d<c <b<a
	Very satisfaction	82	4.10	.48		
	Satisfaction	277	3.78	.49		
	Normal	197	3.53	.47		
Exploration	Dissatisfaction	60	3.52	.56	23.08***	e<d<c <b<a
	Very dissatisfaction	10	3.38	.88		
	Very satisfaction	82	3.78	.71		
	Satisfaction	277	3.48	.62		
Choice conflicts	Normal	197	3.17	.65	21.88***	a<b<c <d<e
	Dissatisfaction	60	2.92	.70		
	Very dissatisfaction	10	2.88	1.02		
	Very satisfaction	82	2.68	.83		
	Satisfaction	277	2.98	.72		
	Normal	197	3.27	.62		
	Dissatisfaction	60	3.60	.60		
	Very dissatisfaction	10	3.75	.85		

***p<.001

1. Very satisfaction(a), Satisfaction(b), Normal(c),
Very dissatisfaction(d), Very dissatisfaction(e)

2.3.2 개인작업신념이 진로결정몰입에 미치는 영향

개인작업신념에 따라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개인작업신념의 2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몰입의 하위요인 4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개인특성을 통제하고 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능력신념과 맥락신념이 진로결정몰입의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에 유의한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선택갈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ffect of personal agency beliefs 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Dependent	Independent	B	t	F	R ²
Tendency to foreclose	Capability	.18	3.84***	6.74***	.13
	Context	-.02	-.34		
Commitment	Capability	.42	9.59***	25.63***	.35
	Context	.10	2.18*		
Exploration	Capability	.33	8.68***	23.57***	.32
	Context	.08	1.90		
Choice conflicts	Capability	-.46	-7.05***	15.77***	.25
	Context	-.05	-.71		

*p<.05, ***p<.001

2.3.3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개인작업신념의 조절 효과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개인작업신념이 진로결정몰입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하고자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중다회귀분석 절차는 진로결정몰입을 종속변수로 하여 1단계에는 예측변인과 조절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작업신념 요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투입된 변인들과 함께 두 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위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에서는 능력신념, 맥락신념 모두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갈등에 있어 맥락신념만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에서 중다회귀분석을 통한 개인작업신념의 조절효과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4] 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

Dep.	Indep.	β	F	R ²	
Tendency to foreclose	Step 1	Major satisfaction	.009 ***	17.167 ***	.052
		Capability	.225 ***		
	Step 2	Major satisfaction	.060	6.094 **	.019
		Context	.111 **		
Commitment	Step 1	Major satisfaction	-.025	11.438 ***	.052
		Capability	.201		
	Step 2	M.S.*Cap.	.048	4.9578 **	.023
		Major satisfaction	-.308		
Exploration	Step 1	Context	-.132	146.630 ***	.320
		M.S.*Con.	.494		
	Step 2	Major satisfaction	.165 ***	85.499 ***	.215
		Capability	.486 ***		
Choice conflicts	Step 1	Major satisfaction	.252 ***	98.043 ***	.321
		Context	.331 ***		
	Step 2	Major satisfaction	.018	57.328 ***	.217
		Capability	.380 ***		
Exploration	Step 1	M.S.*Cap.	.212	131.360 ***	.297
		Major satisfaction	.051		
	Step 2	Context	.198		
		M.S.*Con.	.270		

		Major satisfaction	.280 ***	82.453 ***	.209
		Context	.297 ***		
	Step 2	Major satisfaction	.304	87.635 ***	.297
		Capability	.514 ***		
		M.S.*Cap.	-.148		
		Major satisfaction	.395	55.015 ***	.210
	Context	.373 **			
		M.S.*Con.	-.154		
Choice conflicts	Step 1	Major satisfaction	-.226 ***	94.905 ***	.234
		Capability	-.355 ***		
		Major satisfaction	-.295 ***	62.964 ***	.168
		Context	-.220 ***		
	Step 2	Major satisfaction	.072	64.612 ***	.238
		Capability	-.141		
		M.S.*Cap.	-.429		
		Major satisfaction	.133	43.609 ***	.174
	Context	.063			
		M.S.*Con.	-.575 *		

*p<.05, **p<.01, ***p<.001

2.3.4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개인 자인신념의 매개 효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진로배제, 몰입, 탐색에 있어 상호작용 항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하여 Cohen, J. & Cohen, P.(1983)가 제안한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개인자인신념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순서는 1, 2, 3단계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경로(전공만족→진로결정몰입)의 유의성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는 매개변수의 유의성 정도(개인자인신념→진로결정몰입)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개인자인신념이 진로결정몰입 하위 요인 중 몰입, 탐색, 선택갈등에 있어 독립변수(전공만족)와 종속변수(진로결정몰입)의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몰입(.544→.486), 탐색(.511→.440), 선택갈등(-.435→-.355)에 있어 β값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개인자인신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로배제경향에 있어서는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독립과 종속변인의 경로가 유의하지 않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ree-step mediate regression analysis

		Division	β	F	R ²
Step 1	Major Satisfaction→	Capability belief	.352 ***	88.291 ***	.124
	Major Satisfaction→	Context belief	.256 ***	46.623 ***	.065
Step 2	Major Satisfaction→	Tendency to foreclose	.088 *	4.884 *	.008
	Major Satisfaction→	Commitment	.336 ***	79.53 ***	.113
	Major Satisfaction→	Exploration	.356 ***	90.653 ***	.127
	Major Satisfaction→	Choice conflicts	-.351 ***	87.525 ***	.123
Step3	Capability belief→	Tendency to foreclose	.228 ***	34.341 ***	.052
	Capability belief→	Commitment	.544 ***	262.604 ***	.296
	Capability belief→	Exploration	.511 ***	220.571 ***	.261
	Capability belief→	Choice conflicts	-.435 ***	145.329 ***	.189
	Context belief→	Tendency to foreclose	.126 **	10.041 **	.016
	Context belief→	Commitment	.395 ***	115.490 ***	.156
	Context belief→	Exploration	.369 ***	98.133 ***	.136
	Context belief→	Choice conflicts	-.295 ***	59.498 ***	.087
Step4	Major Satisfaction,	Capability belief→	.009	17.167 ***	.052
	Tendency to foreclose		.225 ***		
	Major Satisfaction,	Capability belief→	.165 ***	146.630 ***	.320
	Commitment		.486 ***		
	Major Satisfaction,	Capability belief→	.201 ***	131.360 ***	.297
	Exploration		.440 ***		
	Major Satisfaction,	Capability belief→	-.226 ***	94.905 ***	.234
	Choice conflicts		-.355 ***		
	Major Satisfaction,	Context belief→	.060	6.094 **	.019
	Tendency to foreclose		.111 **		
Major Satisfaction,	Context belief→	.252 ***	85.499 ***	.215	
Commitment		.331 ***			
Major Satisfaction,	Context belief→	.280 ***	82.453 ***	.209	
Exploration		.297 ***			
Major Satisfaction,	Context belief→	-.295 ***	62.964 ***	.168	
Choice conflicts		-.220 ***			

*p<.05, **p<.01, ***p<.001

3.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공에 대한 만족은 몰입, 탐색에는 정적인 영향을, 선택갈등에는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대학교 교수는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학한 후에 다양한 과목을 접하면서 점차 자기 직업과 하는 일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찾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전공교과에 대한 만족뿐만 아니라 전공 학문에 대한 일반적 만족,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물리적, 심리적 지원, 적극적인 진로지도, 비전 제시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 선택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만들고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과 변경제도를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고 열정을 이룰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인자신념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선택갈등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 지식, 기술,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자신념이 높을수록 목표에 대한 지향과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2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7][12]와도 같은 결과라 하겠다. 한편 자신의 주변 환경이 목표달성을 하는데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평가인 맥락신념은 탐색과 몰입에 영향을 미쳤는데, 맥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16]),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0][31]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진로결정몰입에 있어 맥락신념보다 능력신념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ord는 능력신념과 맥락신념이 합쳐져서 동기의 수준을 조절하는 패턴을 형성한다고 하면서 10가지의 다른 유형들로 구성된 분류법을 제안하고 있다[19]. 그는 모든 상황에 최선인

단 하나의 개인자신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효과적인 기능은 강한 능력신념과 긍정적 맥락신념의 강한(robust)유형, 강한 맥락신념과 보통의 맥락신념인 끈기 있는(tenacious)유형 또는 보통의 능력신념과 긍정적인 맥락신념을 가진 적당한(modest)유형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강한 능력신념과 부정적 맥락신념의 경우 대립하거나(antagonistic) 수용하는(accepting) 유형으로 나타나는 데 이 두 유형 모두 적극적 행동을 촉발시키거나 문제가 있는 맥락의 반대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진 심리적 대처과정을 일으켜 어느 정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반면 약한 능력신념과 긍정적 맥락신념을 가진 경우 깨지기 쉬운(fragile)유형이라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물과 햇빛이 필요한 연약한 꽃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약한 능력신념과 보통수준의 맥락신념이 합쳐진 경우를 자기의심(self-doubting)유형이라고 명명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깨지기 쉬운 유형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능력신념이 강하거나 보통이상인 경우는 맥락신념이 부정적일지라도 동기를 유지하고 바라는 성과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진로결정몰입에 있어 능력신념의 설명력이 크게 나타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진로결정몰입 관계에 있어서 개인자신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진로결정몰입의 하위요인 중 선택갈등에 있어 맥락신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이 인식하는 주위 환경이 긍정적이고 목표를 얻는데 드는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전공에 대해 불만족스럽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결정과 관련한 불확실, 걱정과 혼란, 미결정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지지나 상황을 호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선택갈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 가족, 진로상담자는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물론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보제공과 비전 제시, 기대, 지지, 동기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수제를 강화하고 멘토링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넷째,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개인자신념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배제경향에서는 완전매개를, 몰입, 탐색,

선택갈등에 있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은 몰입과 탐색, 선택갈등에 직접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공에 대해 만족하면 긍정적인 능력신념과 맥락신념을 형성하고 이러한 개인작인신념이 몰입과 탐색 수준은 높여주고 선택갈등을 줄여 준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배제경향의 경우 전공만족은 진로배제경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전공만족이 개인작인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진로배제경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고 해서 진로배제경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에 대해 만족하면 자신과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동기부여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몰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진로배제경향의 평균값이 남학생 M=2.62, 여학생 M=2.36으로 4학년의 경우도 2.61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어려운 취업여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진로배제경향이 강력하게 자신의 진로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때, 보통이하의 평균값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며, 몰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나 교수, 학교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목표와 진로결정에 믿음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진로배제경향을 높이는데 있어 개인작인신념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은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 졸업 후 자신이 선택할 직업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하는 체명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미 선택한 전공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학년에서부터 탐색과 몰입을 통하여 진로를 설정하고 관여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진로결정몰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인의 능력과 환경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로상담자들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이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작인신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선택한 전공으로 인한 혼란과 무기력함, 낮은 능력신념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불안 및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식을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고 의지가 있을지라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고 정보적, 물리적, 심리적 지원 등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지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학생 스스로가 지각하는 신념이 적응적 결과 및 심리적·신체적 안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들이 진로준비를 해나감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기수준을 끌어올리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안정감을 통해 동기를 부여함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몰입하고 탐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로결정, 직업선택, 진로결정 이후의 만족감, 직업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결정몰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진로결정몰입을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한 애착을 가지는 심리적 구조, 상태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후속연구에 있어 하위요소별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12][16][31]. 이에 본 연구는 진로결정몰입을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진로결정에 강한 애착뿐만 아니라 진로목표를 위해 꾸준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후기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대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를 추구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진로결정과정을 진로배제경향, 몰입, 탐색 그리고 선택갈등 등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개인작인신념을 동기변인으로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계사이에서의 인지적, 행동적,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Choi, Jong-sung, "The effec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 on action for career prepar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Konkuk University, MA. Thesis, 2009.
- [2] Ministry of Education, 2012
- [3] Kim, Ji-Hye, "An Impact of Student Achievement Majoring Dance on Adaptation of University life and Behavior of Preparing Career", Kyunghee University, MA.

- Thesis, 2011.
- [4] Jang, Kwang-Won & Jang, Sung-Hwa,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Compromise Patterns, Career Maturit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3(2), 59-79, 2012.
- [5] So, Yeon-Hee,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2), 117-134, 2011.
- [6] Yoon, Yuong-Ran,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13(1), 123-168, 2007.
- [7] Kim, Soon-Mee, "A structural analysis of anticipated self-efficacy, career outcome expectancie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career explo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Youngnam University, Ph.D. Thesis, 2008.
- [8]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1979.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9] Kim, Ji-Kun & Lee, Ki-Hak, "The Effec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in the College Students' Commitment to Career Choice: Mediated by Personal Growth Initiative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1), 81-97, 2011.
- [10] Blustein, D. L. & Strohmer, D. C. Vocational hypothesis testing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1, 45-62, 1987.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7\)90034-0](http://dx.doi.org/10.1016/0001-8791(87)90034-0)
- [11] Blustein, D. L. "A canonical analysis of career choice crystallization and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3), 294-297,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35.3.294>
- [12] Kim, Tae-Hwan, "A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family support, career decision autonom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rom undergraduate students", Seoul University, MA. Thesis, 2013.
- [13] Lee, A-Ra, "Effect of acceptance-based interventions regarding possible negative outcomes of career uncertainty o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of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 University, Ph.D. Thesis, 2013.
- [14] Son, Eun-Ryung, "The Role of Chance and Happenstance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1), 385-397, 2009
- [15] Choi, Soo-Jo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Family Variables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eoul University, MA. Thesis, 2007.
- [16] Ryu, Jin-Sook,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Family Resilience, Self-determination, Commitment to Career Choi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Chungbuk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17] Min, Ji-Ae,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ego identity, and commitment to their career choices", Catholic University, MA. Thesis, 2012.
- [18] Lee, Kyung-Soon, "The effect of dysfunction family structure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A. Thesis, 2012.
- [19] Ford, M. E. *Motivating human: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1992.
- [20] Kim, Byung-Suk, *Handbook of Occupational Psychology*, Sigmappress, 2005.
DOI: <http://dx.doi.org/10.4135/9781483325361>
- [21] Jan Florin, Anna Ehrenberg, Lars Wallin & Petter Gustavsson, "Educational support for research utilization and capability beliefs regarding evidence-based practice skills: a national survey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1.
- [22] Chong, W. H. "The role of self-regulation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 psychoeducational approach with asian high school students in Singapore",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0(4), 343-361, 2005.
DOI: <http://dx.doi.org/10.1080/01933920500184964>
- [23] Chong, W. H. "The role of personal agency beliefs in academic self-regulation: An asian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1), 63-76, 2007.
DOI: <http://dx.doi.org/10.1177/0143034307075681>
- [24] Haney, J., Lempe, A. "Profiling the Personal agency belief patterns of K-12 science teachers" A paper presentation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San Diego, CA, April 18-22, 1998.
- [25] An, Yoon-jung, "The Effects of Job Management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Performance Appraisal on Workers' Personal Agency Beliefs" Kyungki University, Ph. D. Thesis, 2011.
- [26] An, Yoon-Jung, Oh, Hyun-Joo & Kim, Mi-Kyou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atisfaction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4), 151-171, 2011.

- [27] An, Yoon-Jung & Kim, Mi-Kyoung, "The 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by personal goals and change percep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2), 87-213, 2012.
- [28] An, Yoon-Jung & Seo, Ji-Yoo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2), 634-643,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2.634>
- [29] Yang, Jin-Hee,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emale College Student", Sookmyung Woman's University, MA. Thesis, 2007.
- [30] Ko, Tae-Y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okpo University, Ph. D. Thesis, 2008.
- [31] Yoo, Su-Bok, "The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hungbuk University, Ph. D. Thesis, 2013.

김 윤 중(Kim Youn Joong)

[정회원]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1년 1월 ~ 2013년 2월 : (주) 커리어넷 선임연구원
- 201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취업지원관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상담, 직업정보, 노동경제, NCS